

Dubai유 하락 불구하고 WTI 상승세

2005년 원유 수요증가 전망에 국제유가 혼조 ... Brent유는 37.9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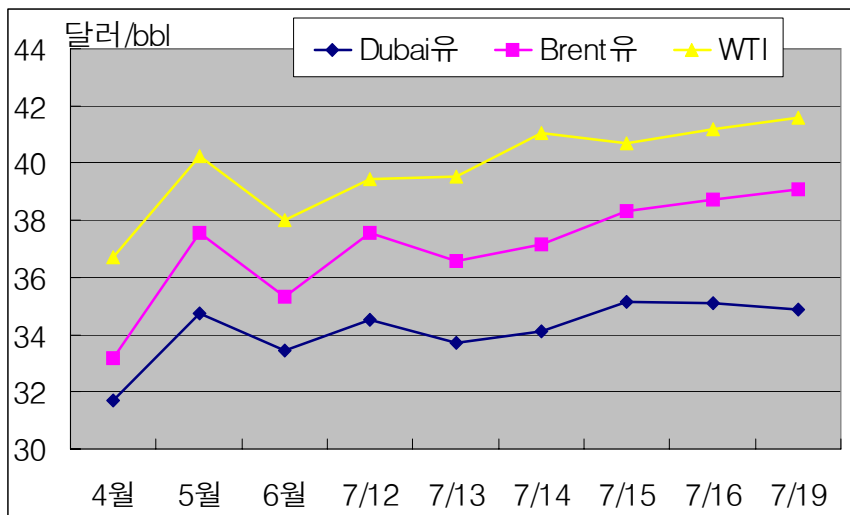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2005년 원유 수요증가 전망 발표와 이라크 정정불안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2일째 소폭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19일 현지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전날보다 0.44달러 오른 배럴당 41.60달러를 기록했으며 북해산 Brent유는 39.07달러로 0.34달러 상승했다.

WTI 8월물 선물가격도 0.39달러 오른 41.64달러를 기록해 6월2일 42.45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그러나 가격변동 요인이 하루 늦게 반영되는 중동산 Dubai유 현물가격은 34.89달러로 0.19달러 하락했으며, 런던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 선물가도 0.10달러 떨어진 37.90달러를 기록해 유종과 시장에 따라 혼조세 양상을 보였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OPEC이 보고서에서 2005년 원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라크 송유관 시설에 대한 테러 등 중동 정정불안이 지속되면서 WTI를 중심으로 국제유가가 소폭 올랐다”고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4/07/21>